

쓰쓰이의 변형 성냥갑 고안

모 양을 바꾸는 것도 발명이다.
빌딩의 수위였던 쓰쓰이는 모양을 바꾼 성냥갑으로 천만장자가 되었다.

30여년 전까지만해도 성냥갑이라면 장방형의 것과 삼각형의 것이 고작. 쓰쓰이는 여기에서 착안, 50여종의 성냥갑을 선보여 성냥박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동경올림픽이 준비되고 있을 무렵, 일본 전역은 판촉물 개발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값싼 물건으로 회사와 상품을 홍보하려는 기업들의 극성도 대단했다. 이름있는 기업들은 현상금까지 내걸고 아이디어를 모집하였고, 이에 편승하여 시민들도 아이디어 짜내기에 고심했다.

어린시절부터 아이디어맨으로 소문난 쓰쓰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수위로 끝낼 수는 없지.’

쓰쓰이는 새로운 판촉물 개발에 운명을 걸기로 결심했다.

1주일에 3일만 근무하면 되므로 시간도 충분했다.

‘판촉물이라면 값이 싸고, 모든 사람의 필수품이어야 하는데…….’

공공 밭다가 담배 한 대를 피우려는 순간 쓰쓰이는 무릎을 탁 쳤다.

성냥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 성냥갑이다.’

이날부터 뿔뿔한 종이를 구해 성냥갑을 만들기 시작, 하루에도 4~5개의 각종 성냥갑을 만들었다.

영문도 모르는 동료들이 비웃기까지 했으나 쓰쓰이는 즐겁기만 했다.

이단형, 반달형, 맥주병형, 8각형, 원통형…….

새로운 모양의 성냥갑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의 희망도 그만큼 부풀어 올랐다.

1백여종의 성냥갑중 50여개를 골라 특허청에 의장출원도 마쳤다.

그중 맥주병형의 성냥갑이 쓰쓰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일본 굴지의 맥주 회사가 올림픽을 겨냥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용 판촉물로 채용해 준 것.

이어 나머지 성냥갑들도 꾸준히 팔려나가 쓰쓰이는 로열티만도 연간 1천만엔을 넘어섰다.

뒤늦게 많은 기업이 성냥갑의 변형을 시도했으나 이미 쓰쓰이가 모두 의장출원을 마쳐버려 번번이 허사였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팀장
왕연중記

발·특2006. 5 |